

## 사회

### 선문대 이연 교수 충청언론학회장 취임 [중앙일보]

- 기사
- 나도 한마디 (0)

선문대학교 이연(56·언론광고학부·사진) 교수가 제 3대 충청언론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교수는 지난 달 말 충남대에서 열린 충청언론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추대를 받아 회장 직을 맡게 됐다. 이 교수는 취임사에서 “충청언론학회를 통해 대전·충청지역 언론학자들의 학술적 토론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다른 지역 언론학회를 비롯해 외국 언론사, 학술단체와의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 상지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선문대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위기관리와 메스미디어』 『일본의 방송과 방송문화사』 등이 있다.



관련핫이슈

천안·아산 LIFE

## 社会

### 鮮文大 李鍊教授 忠清言論学会長

### 就任

鮮文大(鮮文)大学校、李鍊(56·言論広告学部·写真)教授が第3代忠清言論学会会長に就任した。李教授は、先月末に忠南大で開かれた忠清言論学会定期総会において会員たちに推戴され、会長に就任することとなった。李教授は、就任の辞において“忠清言論学会を通して大田・忠清地域の言論学者たちの学術的討論の空間を提供する”とし、“国内の他地域の言論学会をはじめ、外国言論社、学術団体との交流も拡大していく”と語った。

李教授は、日本上智大学で言論学博士号を取得し、現在、鮮文大社会科学大学長として在職している。主な著書としては、『危機管理とマス・メディア』、『日本の放送と放送文化史』などがある。



〈2009年7月6日、中央日報〉